



2013년 5월 3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CHART OF THE WEEK: ECB 통화정책회의

• 경제분석

3월 산업활동: 수출 부진이 내수 악화로 연결
4월 수출, 장기화되고 있는 수출 부진

• 크레딧분석

5월 크레딧 시장: 지루한 횡보국면 속 여전채 약세

• 이머징마켓 동향

지표 및 실적 부진으로 중화권 증시 약세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한국타이어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전자 외 5종목

• 기업분석

CJ오쇼핑, LG유플러스, 솔브레인, 유한양행,
CJ대한통운, S-Oil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4/24(수)	04/25(목)	04/26(금)	04/29(월)	04/30(화)	05/02(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35.31	1,951.60	1,944.56	1,940.70	1,963.95	1,957.21
	등락폭	16.68	16.29	-7.04	-3.86	23.25	-6.74
	등락종목	상승(상한)	441(2)	428(4)	376(6)	505(4)	318(5)
		하락(하한)	374(0)	369(0)	428(3)	290(4)	486(1)
	ADR	98.03	98.55	96.30	97.67	102.81	100.88
	이격도	10 일	101.49	101.02	100.71	101.70	101.17
		20 일	100.57	100.36	100.31	101.57	101.29
	투자심리	60	60	6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341	335	280	266	403	343
	거래대금 (십억 원)	4,433	4,598	4,068	3,648	4,975	4,038
코스닥	코스닥지수	563.81	559.40	565.35	568.36	563.87	560.48
	등락폭	9.44	-4.41	5.95	3.01	-4.49	-3.39
	등락종목	상승(상한)	441(12)	428(9)	376(10)	505(9)	411(14)
		하락(하한)	374(7)	369(0)	428(1)	290(4)	504(4)
	ADR	100.23	97.98	98.55	100.61	102.21	101.23
	이격도	10 일	101.05	101.79	102.07	101.17	100.53
		20 일	101.76	102.75	103.16	102.24	101.60
	투자심리	60	60	6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475	547	490	442	506	447
	거래대금 (십억 원)	2,717	2,958	2,532	2,429	2,704	2,290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79.0	1,099.0	942.1	186.3	148.0	261.6	67.4	29.3	249.484	38.3
	매도	1,840.7	1,188.4	975.1	226.2	143.7	284.2	62.0	28.1	230.9	54.3
	순매수	138.3	-89.3	-33.1	-39.9	4.3	-22.6	5.4	1.1	18.6	-15.9
	05 월 누계	138.3	-89.3	-33.1	-39.9	4.3	-22.6	5.4	1.1	18.6	-15.9
	13 년 누계	1,210.8	-5,844.9	5,070.2	1,741.4	642.5	-1,443.6	160.7	90.2	3,878.8	-436.0
코스닥	매수	2,106.0	106.8	82.1	17.8	11.0	26.1	4.6	2.0	20.5	15.0
	매도	2,015.2	130.5	139.7	26.9	13.8	49.2	13.5	4.2	32.2	24.4
	순매수	90.8	-23.7	-57.6	-9.1	-2.8	-23.1	-8.9	-2.1	-11.7	-9.5
	05 월 누계	90.8	-23.7	-57.6	-9.1	-2.8	-23.1	-8.9	-2.1	-11.7	-9.5
	13 년 누계	-1,399.7	694.7	1,045.6	73.3	50.6	364.8	-74.7	-13.7	656.0	-340.6

CHART OF THE WEEK: ECB 통화정책회의

5월 월간 밴드	1,900-2,020pt
2013년 연간 밴드	1,800-2,250pt
12MF PER	9.06배
12MF PBR	1.02배
Yield Gap	8.6%P

- ▶ ECB 기준금리 0.50%로 25bp 인하: 초단기 대출금리 50bp 인하, 예금금리 유지
- ▶ 와일드 카드의 부재: 금융과 실물, 중심국과 주변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괴리 지속
- ▶ 유로존 경기둔화의 큰 틀 당분간 유지될 것

■ ECB 통화정책회의: 기준금리 인하 + 알파?

ECB가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0.50%로 25bp 인하했다. 10개월 만의 인하로 인해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ECB가 그동안 금리 인하 가능성을 꾸준히 내비친 데다 경제지표 둔화로 부양 필요성이 커진 까닭에 금리 인하 발표에도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관건은 ECB가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추거나 대출에 대한 담보 규정을 완화하는 등 추가 부양책을 내놓는가 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초단기 대출금리를 1.0%로 50bp 인하했으나 예금금리는 0.0%로 유지했고, 그 이외의 정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통화정책은 필요할 때까지 부양 기조를 유지할 것

- 취약한 경기 흐름이 봄까지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
- 유로존의 취약한 경제활동은 이제 유로존 핵심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확고히 안정됐다고 판단
- 오늘의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하반기'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

무제한 단기유동성 지원 내년 7월까지 연장

- 당초 올 7월말까지로 계획했던 평균 만기 1개월 안팎의 단기 유동성 공급정책(MRO) 지원을 내년 7월 8일까지 무제한적으로 공급
- 만기 3개월 이상의 장기대출 프로그램(LTRO) 역시 확대해 고정금리로 자금을 최대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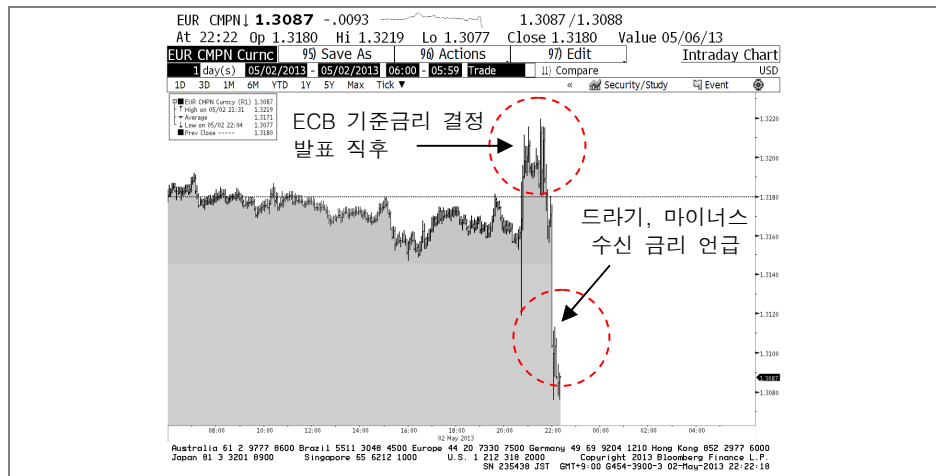
중소기업을 위한 ABS 시장 활성화 방안 논의 시작

- 비금융 기관 대출을 위한 자산담보부증권(ABS) 시장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유럽 기관들과 협의를 시작하기로 결정
- ECB가 직접 ASB를 사는 방식은 아님

예금금리 마이너스 인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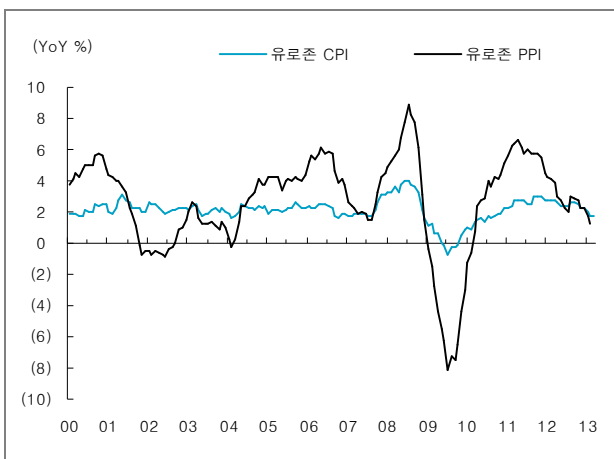
- 수신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
- 드라기 발언과 함께 유로화-달러 환율 장중 급락 움직임 보임

[그림 1] 유로화-달러 환율 장중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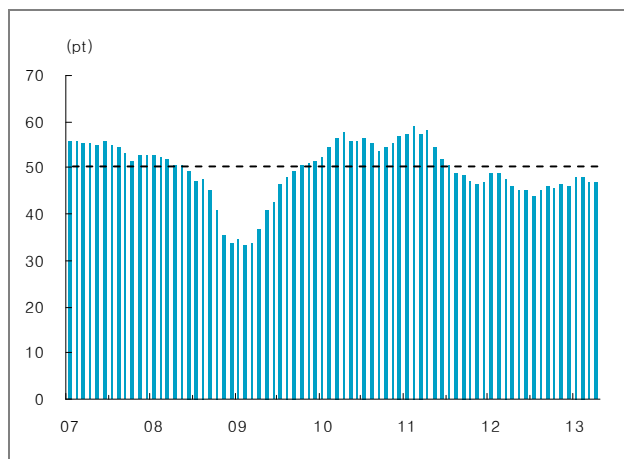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유로존 CPI와 PPI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유로존 PMI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와일드 카드를 기다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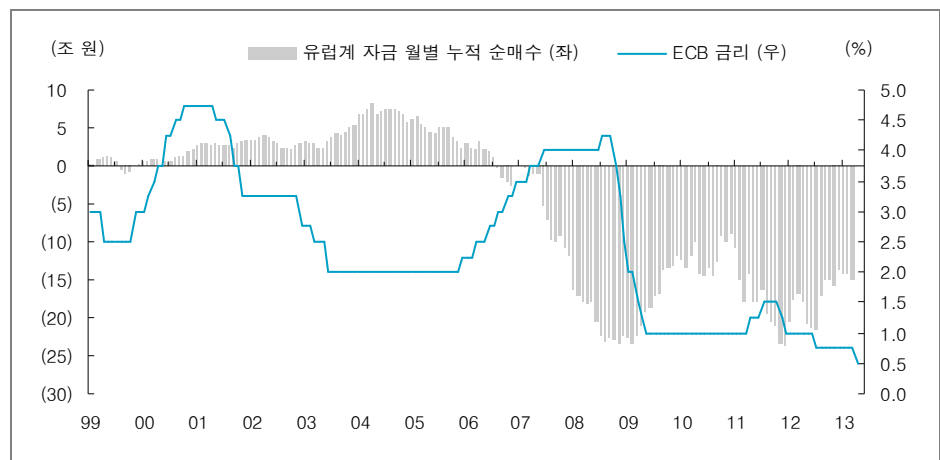
ECB 금리 인하는 통상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유럽계 자금 유입으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는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가능성들이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2014년 7월까지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이 유지된다는 점, 드라기 총재가 마이너스 수신 금리의 부작용을 강조하던 기존 기자회견과 달리 그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저금리의 혜택이 중심국에 쏠리고, 주변국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번 ECB 회의를 앞두고 특히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대책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으나 ABS 시장 활성화에 대한 암시만 나왔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변국의 중소기업은 심각한 신용 제약에 직면해 있다. 시장에서는 담보 규정 완화 또는 가계와 기업에 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의 대출펀딩제도(FLS) 같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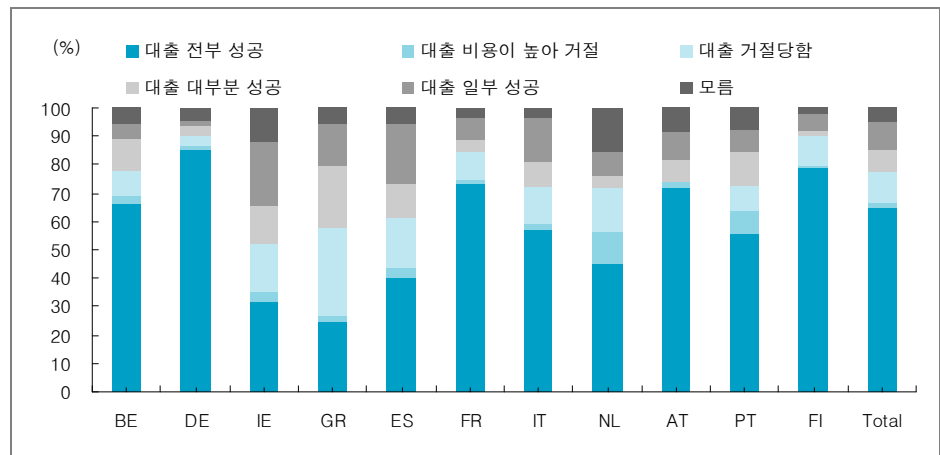
결국 유로존에는 금리인하보다 더 급진적인 정책, 와일드 카드가 필요하다. 그러나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의 긴축 강화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등의 트리거가 나타날 때까지는 경기둔화의 큰 틀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그림 4] ECB 기준금리와 유럽계 자금 KOSPI 누적 순매수 추이



자료: 금감원, ECB,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유로존 중소기업 국가별 은행 대출 신청 결과: 독일과 프랑스 대비 남유럽 국가들 중소기업은 은행 대출 실패율 높아



주: 2012년 하반기 6개월 기준
자료: ECB, 한국투자증권

3월 산업활동: 수출 부진이 내수 악화로 연결

- ▶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생산 감소, 투자 부진은 심화, 소비 증가는 기술적 반등 정도
- ▶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출 부진의 여파가 내수 경기에 악영향
- ▶ 경기 심각한 부진 확인됨으로써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졌음

■ 1분기 광공업생산 전기비 0.9% 감소, 예상보다 더 부진한 국내 경기

3월 광공업생산이 전월비 2.6% 감소해 -0.9%를 예상했던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 이로써 광공업생산은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1분기 전체로는 전기비 -0.9%를 기록했다. 현재 국내 경기 여건은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지 못한 상황이다. 3월로 갈수록 전월비 생산 감소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국내 경기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업 생산과 건설업, 공공행정 부문을 모두 포함한 전산업생산은 전기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전주 한국은행이 1분기 경제성장률을 전기 대비 0.9%로 발표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 투자 부진 심화, 소비 증가는 기술적 반등 정도

생산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도 부진이 심했다. 투자는 전월 반등에 성공했지만 한 달 만에 흐름이 꺾였고 소비는 늘었지만 직전 2개월 연속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두긴 어렵다.

〈표1〉 산업활동동향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추이

(%)	Sep-2012	Oct	Nov	Dec	Jan-2013	Feb	Mar
전산업생산	1.0	-1.0	1.4	-0.2	3.2	-2.0	-0.9
광공업	-0.8	-1.9	2.1	-0.4	7.7	-9.4	-3.0
서비스업	2.2	0.4	1.4	0.7	1.3	0.1	0.7
건설업	-2.7	-8.9	1.5	-8.3	8.8	3.6	3.2
공공행정	2.9	-0.1	-1.2	3.1	-6.7	16.9	-6.0
소매판매	2.9	1.5	4.0	2.0	-2.7	1.7	1.7
설비투자	-8.6	-3.5	-10.8	-6.3	-15.7	-18.5	-9.2
건설수주	-19.7	-26.6	-20.0	-43.0	-52.7	-47.0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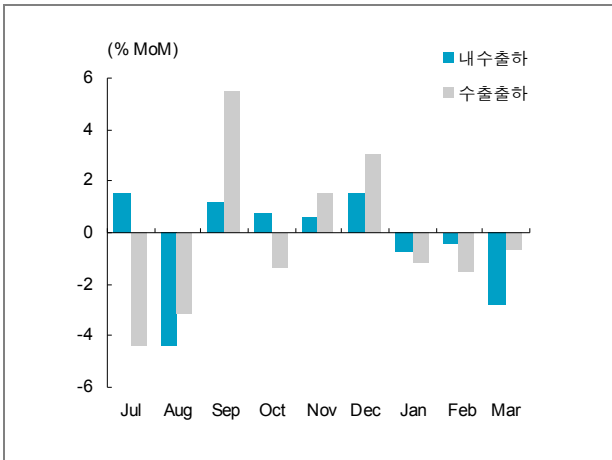
〈표2〉 산업활동동향 전월 대비 증가율 추이

(%)	Sep-2012	Oct	Nov	Dec	Jan-2013	Feb	Mar
전산업생산	1.1	-0.4	1.1	1.0	-0.9	1.1	-2.1
광공업	1.2	1.0	2.1	1.6	-1.2	-0.9	-2.6
서비스업	0.9	-0.9	0.5	0.5	-1.1	1.8	-1.0
건설업	3.5	-0.8	1.3	2.1	-0.3	5.6	-3.0
공공행정	0.6	-2.8	0.4	0.8	0.7	3.2	-7.1
소매판매	1.0	-0.6	1.2	0.4	-1.9	-0.6	1.4
설비투자	6.3	-0.2	0.1	6.3	-8.8	6.3	-6.6
건설수주	-6.1	-13.6	4.4	-10.8	-23.7	57.7	-17.2

■ 반도체 및 부품 제외 시 국내 생산 여건 더욱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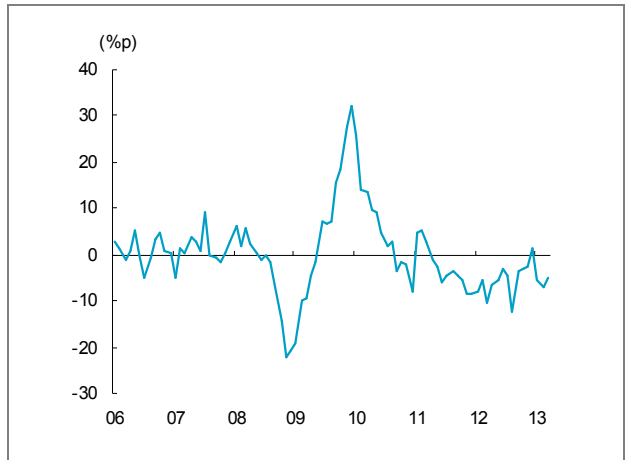
과거 위기 때처럼 전산업에서 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IT 산업 일부에만 극히 편중돼 있다. 특히, 신제품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휴대폰부품 수출 호조를 제외하면 IT 업종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기장비와 반도체 등 휴대폰 제조 관련 부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영상음향기기(디스플레이) 등은 생산, 출하는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재고가 13%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산업 전체적으로 봐도 반도체 및 부품을 제외한다면 출하 감소 폭과 재고 증가 폭은 훨씬 확대됐으며 한 두 업종을 제외하면 더 부진하다.

[그림1] 제조업 내수출하 및 수출출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그림2] 반도체 및 부품 제외한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주: 해당 생산지수(SA)를 출하증가율(YoY)에서 재고증가율을 차감한 것임

자료: 통계청

■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출 부진 여파가 내수 경기에 악영향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3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가 내수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이 확인됐다. 첫째, 3월 생산 부진이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들 업종에서 동시에 수출출하가 빠르게 감소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1~2월에는 내수용 출하보다는 수출용 출하 감소 폭이 더 컸지만 3월에는 내수 출하 부진이 훨씬 컸다는 점이다. 셋째, 예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적정재고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즉, 현재 출하가 감소했다라도 향후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면 적정 재고를 보유하기 위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현재는 이러한 신호를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업종을 보면 출하 감소로 재고가 전월보다 6.4% 감소했지만 생산은 9.8% 줄어 더 큰 폭으로 축소됐다.

■ 선행지수 하락세 지속은 향후 경기 전망도 불확실한 것을 예고

선행지수를 통해 본 국내 경기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단기 국내 경기 반등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예고한다. 3월 선행지수 구성 요소 가운데 소비 심리와 금융시장 지표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기계수주, 건설수주, 재고순환지표, 구인구직비율 등 실물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모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는 심리와 금융시장 여건 개선이 경기 회복을 선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정부 출범으로 정책이 이행되는 데 따른 기대감과 대외 시장 안정 등에 일시적으로 반응한 요인이며, 이것이 회복의 단초가 될 힘은 부족해 보인다.

■ 경기 판단에서 한국은행과 괴리 더 확대

3월 산업활동동향이 크게 악화됨으로써 통계청의 경기 지표와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 지표도 서로간에 상당한 괴리를 보이게 됐다. 한국은행의 지표가 대체로 통계청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특히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 소비 등에서 두드러졌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통계 작성 방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두 기관의 통계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차이가 나는 첫 번째 원인은 통계청은 물량을 측정하고 한국은행은 부가가치를 측정한다는 데 있다. 같은 물량을 생산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제품이라면 한국은행 통계에서는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두 번째 원인은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은 실측 통계인 반면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은 가공통계이라는데 있다.

■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봐야 할 듯

지난 4월 25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은 속보치로서 3월 경제 지표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계산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3월 경제지표에 대해 어떤 가정을 사용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계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6월 7일 발표될 잠정 국민소득에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 예상으로는 0.6%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3월 산업활동동향이 한국은행의 경기 판단도 하향 조정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4월까지의 경기 호조를 이유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 상기 보고서는 2013년 4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4월 수출, 장기화되고 있는 수출 부진

- ▶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 2년째 수출 부진 지속
- ▶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는 소재와 자본재 중심의 한국 수출에 불리
- ▶ 소비재 중심으로 수출 구조 재편할 때까지 수출 부진 이어질 수 있음

■ 4월 수출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에 그쳐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0.4% 증가에 그쳐, 2.9%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수입은 0.5% 감소해, 역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4월 중 무역수지 흑자는 25.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4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83.6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무역수지 흑자인 33.1억 달러에 비해 2.5배 이상 많은 것이다.

〈표 1〉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2012년		2013년			
		1~4월	1월	2월	3월	4월	1~4월
수출	금액	180,941	45,700	42,327	47,437	46,298	181,763
	증가율	0.8	10.9	-8.6	0.2	0.4	0.5
수입	금액	177,628	45,229	40,307	44,149	43,716	173,400
	증가율	5.6	3.9	-10.6	-2.0	-0.5	-2.4
무역수지	금액	3,313	472	2,020	3,289	2,582	8,36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는 불가피한 부진

최근 수출 동향을 보면 선박,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유제품,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품목 대부분에서 심각한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박, 기계, 철강 등이 수출 부진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글로벌 성장 패러다임 변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은 대체로 소재와 자본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역협회가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중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그런데 전체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25%였으며, 1990년에는 무려 46%에 달했다. 즉, 한국의 수출이 처음부터 소재와 자본재 중심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1990년대에 자본재 비중이 크게 높아진 것은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른 것이었다. 반면, 2000년대 소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 구조가 강화된 것은 중국의 수출 확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국내 투자 증가에 따라 부품과 소재, 기계류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표 2〉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2010	2011	2012	2013, 1-4	주요 요인
자동차	39.4	28.0	4.2	-3.3	자동차 업체 휴일 생산 차질
자동차부품	61.9	21.8	6.6	6.8	중국 현지 자동차 생산 증가
반도체	63.4	-1.1	0.6	6.8	스마트기기 수요 증가
무선통신기기	-10.9	-1.1	-16.7	30.3	LTE 스마트폰 수출 호조
디스플레이	27.6	-7.0	1.3	7.7	TV용 패널 출하량 증가
가전	27.4	4.0	-5.2	11.0	3D TV 점유율 상승 등
섬유류	19.5	14.6	-2.1	2.0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수요 증가
일반기계	34.5	26.9	4.6	-1.3	주요국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
선박류	8.8	15.2	-29.7	-32.3	선박 공급 과잉 및 유럽 재정 위기
석유화학	30.0	27.6	0.7	9.9	공급 어려움 증가 및 기저 효과
철강	25.4	33.3	-3.9	-11.4	단가 하락 및 일본내 수요 감소
석유제품	37.3	63.7	8.7	0.6	수출 단가 하락 및 업체 정기 보수
컴퓨터	13.8	0.4	-7.6	-2.3	모니터 해일 판매 부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3〉 수출 품목의 성질별 구성 비율

(단위: %)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원자재 (천연자원, 소재, 원재료, 중간재료 등)	26.3	32.8	31.4	29.6	31.2	36.5
자본재 (기계류, 부품 등)	27.3	40.2	43.4	43.9	53.6	48.4
소비재	46.4	27.0	25.2	26.4	15.3	15.1

자료: 무역협회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중국의 수출이 과거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도 경제 성장 방식을 내수 중심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소재 및 자본재 수출은 점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런 점이 수출 부진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2013년 들어 수출 실적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환경 변화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선박, 기계,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으로 이들 품목의 특징은 절대로 소비자가 직접 사지 않는 품목들이다. 반면에 소비자가 직접 사는 제품인 자동차나 핸드폰 등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향후 수출 전망 불투명

미국의 소비가 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을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중국은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와 부품, 기계 등을 한국을 비롯한 이웃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하는 방식의 공급 사슬은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 구조는 여전히 소재와 자본재 중심으로 짜여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수출 확대가 어렵다. 즉, 한국 수출의 부진은 엔화 약세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국의 수출 구조에 있는 것이다. 1990년대처럼 소비재가 수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때까지 한국의 수출은 낮은 증가율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수출입 전망

(단위: %YoY)

		1QA	2QF	3QF	4QF	2013F
수출	당사	0.5	3.1	7.1	6.5	4.4
	컨센서스	0.5	3.7	6.3	6.5	4.6
수입	당사	-3.0	3.1	10.1	10.1	5.0
	컨센서스	-3.0	4.0	6.4	7.3	4.5

자료: 한국투자증권, FnGuide

*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5월 크레딧 시장: 지루한 횡보국면 속 여전채 약세

■ 4월 시장동향: 스프레드 보합기조 유지

4월 크레딧 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보합기조가 유지되었다. 11일 금통위에서 예상 밖의 금리 동결 결정으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시장 우려와는 달리 크레딧 스프레드는 변동성이 커진 국채금리 등락폭을 크레딧채권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소폭의 등락만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횡보국면을 나타냈다.

■ 5월 시장전망: 보합기조 지속되는 가운데 섹터별로는 여전채 상대적 약세 예상

우량 크레딧채권의 경우 일부 역마진 부담이 존재할 정도로 절대금리 레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5월 크레딧 스프레드는 보합기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역전상태에 있는 국채금리가 기준금리 동결시에도 경제 성장 둔화 우려로 크게 상승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2월 이후 장장 3개월간 지루한 횡보국면을 보이고 있는 크레딧 스프레드 추세가 5월에도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수급관점에서 5월 5일 이후 CP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과로 공모채권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공고하게 자리잡은 크레딧채권의 대기 수요기반이 위축될 이유도 없어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 여전채의 경우 5월 5일부터 시행되는 CP 공시규제 강화로 CDS ABCP 발행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여, 그간 CDS ABCP의 주요 담보자산으로 편입되어 왔던 AA등급 여전채의 수요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계절적으로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고 레저활동도 활발하여 카드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로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 이에 대응한 카드채 발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카드채 수급부담이 가중될 개연성이 있고, 이는 여전채 전반의 상대적 약세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지표 및 실적 부진으로 중화권 증시 약세

- ▶ 4월 중국 제조업 PMI 50.6로 예상치 하회, 경기회복 둔화 우려로 상해종합 약세
- ▶ 국제상품가격 하락으로 비철금속, 석탄 관련주 약세 뚜렷, 반면 금융 및 부동산 자금 유입
- ▶ 중국 PMI 및 미국지표 예상치 하회, 내년 중국 성장률 7%로 하향 등 악재로 H지수 하락

상해종합지수 약보합.
석탄, 비철금속, 요식업 등
업종 약세

■ 중국 시장

노동절 연휴 이후 4일만에 개재된 상해증시에서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세였다. 1일 발표된 4월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가 50.6로 3월의 50.9 대비 0.3p 하락했고 HSBC 제조업 PMI(확정치)도 50.4로 컨센서스인 50.5를 하회해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또 지난해 전체 상장사 중 비금융기업의 순이익 증가율이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국제 상품가격이 하락해 비철금속, 석탄 관련주가 급락하면서 장중 약세를 이끌었다. 반면 금융주와 부동산 관련주에 자금이 유입돼 주가 하락세가 제한됐다. 업종별로 석탄(-3.0%), 비철금속(-1.7%), 요식업(-1.6%), 식음료(-1.3%), 석유(-0.9%), 자동차(-0.7%) 등이 하락한 반면 에너지(5.0%), IT(3.0%), 임업(2.2%), 증권(1.5%) 등은 상승했다.

■ 홍콩 시장

H지수 하루 만에 반락.
석탄, 증권, 석유, 자동차 등
업종 약세

홍콩H지수는 본토증시에 동조해 하루 만에 반락했다. 중국 관방 제조업PMI가 50.6으로 발표됐고 신규주문, 수출주문지수 등 세부항목이 부진하게 나타나며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 목표가 7%로 하향될 것 이란 성급한 전망이 제기됐다. 전일 미국의 고용지표, ISM제조업지수 등이 예상을 밑돈 것도 약세였다. 업종별로는 석탄, 증권, 석유, 자동차, 건설자재, 기계, 은행 관련종목이 약세였다. 반면 1분기 실적이 양호했던 전력주와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고 위안화 강세지속 기대감으로 항공주도 상승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5/2(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174.12	-0.17	-3.03	-0.17	-4.19
홍콩 H	10,825.35	-0.85	1.80	-0.85	-5.34
인도 SENSEX	19,765.24	1.34	3.05	1.34	1.74
러시아 RTS	1,389.67	-1.25	1.04	-1.25	-8.99
브라질 보베스파	55,910.37	1.86	1.87	0.00	-8.27
베트남 VN	473.02	-0.31	0.98	-0.31	14.33
MSCI 이머징마켓	1,038.12	-0.13	1.05	-0.13	-1.62

주: 2일 오후 6시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미국 경제지표 부진 여파 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코스피, 코스닥 동반 약세

- 미국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지표와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3대지수가 1% 가까이 하락하며 마감. 이에 따른 영향으로 소폭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장중 발표된 중국의 4월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투자심리가 위축,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가 유입되며 1,950P선대로 밀려나며 마감. 강보합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하락반전, 약세흐름을 보이며 이틀째 하락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코스닥 소속부가 우량기업부로 변경된 휴비츠, 코리아나, 제주반도체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매각 작업이 진행중인 동양건설은 이랜드의 인수전 참여 소식에 초강세를 보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불안한 장세가 연출됨에 따라 경기 방어적 성격이 부각된 통신주는 1분기 실적 호조 및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동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감. 신종SI 확산 우려감에 연일 강세를 보인 관련 종목들은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일제히 급락했으며, 미국 빌보드 차트 순위에서 싸이의 '젠틀맨'이 5위에서 26위로 밀려났다는 소식에 와이즈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짐

종목/이슈	내 용
휴비츠(065510) ▶23,500(+5.86%)	우량기업부 변경 소식에 신고가 경신 - 코스닥시장 소속부가 벤처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변경됐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 2007년 중국 진출 이후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안과용 진단기기, 광학 현미경 시장 진출에 따른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실적 개선 기대
동양건설(005900) ▶4,250(+13.03%)	매각 기대감에 초강세 - 이랜드그룹이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초강세.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회사채 인수 방식으로 진행 중이며 매각 예상가는 500~600억원 선으로 거론 - 이랜드를 비롯해 시공능력 100위권 내 중격 건설사 두 곳도 매각주안사 측에 인수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매각 기대감이 고조됨
통신 관련주	1분기 실적 호조 및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주식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경기 방어적 성격이 부각되는 가운데 1분기 양호한 실적 및 마케팅비용 감소에 따른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LG유플러스(032640, 상한가), KT(030200, +5.96%), SK텔레콤(017670, +5.68%), 이루온(065440, +5.35%), 솔리드(050890, +2.79%)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유비케어(032620) ▶3,730(+5.82%)	- 정부가 원격진료 허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아울러, 우량 정기요건 충족으로 소속부를 우량기업부로 변경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
삼진제약(005500) ▶14,200(+10.94%)	- 1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65%, 200%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에 신고가 경신. 최근 경구용 안구건조증 치료제 후보물질인 'SA-001'이 안구건조증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세계 최초 경구용 안구건조증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미디어플렉스(086980) ▶2,970(+4.21%)	- 한국영화 호조 및 해외진출 성과 본격화에 따른 성장성이 부각되며 신고가 경신. 오는 7월 한국과 중국에 동시 배급하는 영화 '미스터코'의 흥행에 대한 관심이 주목됨

참고: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52주신고가)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한국타이어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한국타이어 (161390)	49,400 (+3.1)	47,900 (5/02)	- 투입원가 하락과 브랜드 입지 및 Product mix 개선 등으로 1분기 수익성 개선 - 미국 내 경쟁강도가 완화되는 가운데 하반기 중국 시장 회복 본격화 예상 - 글로벌 점유율 개선과 견고한 이익 안정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비에이치 (090460)	13,400 (-4.6)	14,050 (4/25)	- 모바일 서비스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퍼블리싱 게임 확대에 게임 매출 증가 예상 - RPS(Revenue Per Search; 검색쿼리당 매출) 상승에 힘입어 검색광고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기저 효과, 영업력 강화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다음 (035720)	90,800 (+4.6)	86,800 (4/11)	- 모바일 서비스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퍼블리싱 게임 확대에 게임 매출 증가 예상 - RPS(Revenue Per Search; 검색쿼리당 매출) 상승에 힘입어 검색광고의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 기저 효과, 영업력 강화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SK하이닉스 (000660)	29,450 (+3.0)	28,600 (3/21)	- 갤럭시S4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모바일 DRAM의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스마트폰 및 SSD 보급 확대에 NAND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됨 - 업황 개선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이 예상되며, 하반기 PC 수요 회복 시에는 PC DRAM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
우주일렉트로 (065680)	28,300 (+2.4)	27,650 (3/05)	- 일본 경쟁업체 대비한 경쟁력 열위를 극복하여 주요 고객 내에서 점유율 확대 추세 - 금년 1분기에는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1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 IMT(In Mold Technology), FFC(Flexible Flat Cable), 자동차용 커넥터 등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부각 가능성 상존
기아차 (000270)	55,200 (+0.4)	55,000 (2/26)	- 1월 중국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1월 세계 시장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인 3.9%(전년동월 3.5%)를 달성. 또한 최저 수준의 재고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3월과 5월에 K3와 K7의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신차 모멘텀 기대 - 신모델 출시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감안할 때 환율 안정 시에는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하이닉스, 기아차, 다음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성전자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성전자 (005930)	1,528,000 (+0.5)	1,520,000 (5/02)	235,178	42,197	31,496	202,968	7.5
			-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계절적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 - 갤럭시S4 출시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해소 예상				
대교우B (019685)	4,095 (+1.9)	4,020 (4/11)	789	62	63	673	6.1
			- 유아 및 초등학교 시장 1위(점유율 35%) 업체로 러닝센터에 대한 투자완료로 2013년 이익 개선 예상 - 학습지 단가 인상 가능성과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성장동력 모색 - 풍부한 자산가치와 배당 매력도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가치주로서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2012년 DPS기준 우선주의 예상 배당수익률 5%를 상회				
유한양행 (000100)	204,000 (+9.7)	186,000 (3/21)	918	64	130	12,330	16.5
			- 신제품 효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API(원료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화학(100% 지분 소유)의 증설효과가 예상됨 - 유한김벌리의 프리미엄 기저귀의 중국 수출 확대와 바이오 회사 지분투자 및 외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 유효 - 장기 성장성, 실적 모멘텀,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LG전자 (066570)	85,100 (+9.7)	77,600 (2/26)	53,357	1,562	1,116	6,197	13.7
			- 2012년 휴대폰 부문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및 ASP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가전, TV, 에어컨 부문의 견고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그룹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SK이노베이션 (096770)	145,500 (-14.7)	170,500 (2/06)	67,991	2,326	1,731	18,578	7.8
			- 유가 안정과 경제마진 개선, PX/ BTX 등 주요 화학제품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1분기 실적 개선 예상 - 정유사업의 실적 변동성 축소로 인한 이익 개선과 석유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이익 규모를 유지할 전망				
대덕GDS (004130)	21,450 (+17.2)	18,300 (1/21)	578	58	49	2,156	9.9
			- 모바일기기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는 주력제품인 Rigid Flexible (R/F) FPCB 판매 호조를 견인할 전망 - FPCB와 모바일 메인보드용 HDI 매출비중이 2012년 55%에서 2013년 63%까지 확대되며, 가전에 탑재되는 범용 PCB 제품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적하형 LED TV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LED BAR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제품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이노베이션, LG전자, 삼성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CJ오쇼핑(035760)

매수(유지)

목표가: 390,000원(상향)

종가(4/30): 327,300원

수익성 개선 나타나는 중

■ What's new : 1분기 영업이익 380억원,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

CJ오쇼핑의 1분기 취급고는 전년동기대비 4% 늘어난 7,370억원을 기록했다. TV쇼핑 부문은 4.8% 증가하면서 전체 취급고 성장과 유사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모바일쇼핑이 전년동기 98억원에서 올해 1분기 353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점이다. 반면 인터넷쇼핑은 전년동기대비 6.6% 줄어들었다. 인터넷쇼핑을 모바일쇼핑이 대체하고 있다. 전체 취급고 증가율은 낮았지만, TV쇼핑과 모바일쇼핑 등 고마진 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체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1분기 매출총이익률은 0.9%p 높아진 29.2%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0.7% 늘어난 380억원을 기록했다. 기대이상의 영업이익증가율이다.

■ Positives : 수익성 개선 지속될 전망

모바일쇼핑의 고성장과 TV쇼핑의 취급고 증가로 인해 올해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취급고 증가율은 한 자리 수 증가에 그치고, SO수수료는 연간 15% 증가를 예상하지만, 고마진 사업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이익은 16.7% 늘어난 1,658억원을 예상한다. 품목별 매출 동향도 긍정적이다. PB상품과 exclusive상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쟁사와의 차별화 및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상품mix 개선과 SO수수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중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은 지속될 전망이다.

■ Negatives : TV쇼핑 부문 취급고 증가율 부진

TV쇼핑 부문의 취급고는 전년동기대비 4.8%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내내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한 후 낮아졌다. 모바일쇼핑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 영업이익증가율은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전체 취급고에서 60% 비중을 차지하는 TV쇼핑이 부진할 경우 향후 이익 증가는 제한적이다. 다만 4월 현재 TV쇼핑의 취급고는 높은 한 자리 수 증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 결론 :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모멘텀은 더 커질 전망

낮은 상품매출이익률로 인해 영업이익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던 인터넷쇼핑이 모바일쇼핑으로 대체되는 것은 전체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홈쇼핑 3사 중 PB상품 및 exclusive상품 개발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 위탁형태보다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 CJ오쇼핑에 대한 매수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337,000원에서 390,000원으로 16% 상향 조정한다. 2013년 순이익 추정치를 9.4% 상향하고, 목표배수는 기존 14.1배에서 15.0배로 수정 적용했다. 목표배수를 높인 이유는 TV쇼핑과 모바일쇼핑 고성장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1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759	737	(2.8)	N/A	(2.2)	4.0	3,116	N/A
영업이익	36	38	4.3	38	(15.7)	10.7	166	160
영업이익률(%)	4.8	5.2	0.4%p	N/A	NM	NM	5.3	N/A
세전이익	32	36	10.1	35	21.1	13.6	153	158
순이익	25	28	11.5	28	33.6	15.1	115	121

*상기 보고서는 2013년 4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G유플러스(032640)

매수(유지)

목표가: 12,000원(상향)

종가(4/30): 10,400원

LTE의 성장성, 수익성이 예상보다 더 좋다

■ What's new : 1분기 수익성은 예상치 상회

1분기 영업실적은 우리의 추정치를 상회했다. 매출액은 우리의 추정치와 비슷했으나 영업이익이 1,232억원으로 예상치(947억원)를 30.1% 웃돌았다. 마케팅비용이 전분기 대비 7.7% 증가했지만 제조사 보조금이 늘면서 예상보다는 적었기 때문이다. 1분기 서비스 매출액(단말기 판매 제외)은 이동통신, IPTV 가입자수 증가로 전분기 대비 2.1% 증가했으나 EBITDA는 마케팅비용 증가로 0.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70.8% 늘었으나 합병 영향(10~12년 중 상각비 증가분 반영)을 제외한 조정 영업이익은 2.3% 줄었다.

■ Positives : LTE로 이동통신의 양적, 질적 성장세 지속

1분기에는 양적, 질적 성장세가 이어졌다. 이동통신 및 IPTV 가입자수가 전분기 대비 각각 2.0%, 11.9% 늘었다.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는 대부분 LTE 가입자여서 질적 성장으로 나타났다. LTE 가입자수는 12년 12월 438만명(보급률 43.1%)에서 3월 520만명(50.2%)으로 늘어 1분기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전분기 대비 2.8% 증가했다. 12월에는 800만명으로 증가해 13년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전년 대비 12.2% 늘어날 전망이다. 13년 무선통신 및 IPTV 매출액은 각각 16.2%, 30.8%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보조금 규제정책과 서비스 위주의 경쟁 구도 전환으로 마케팅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LTE 효과와 마케팅비용 절감 추세를 반영해 13년, 14년 영업이익을 각각 8.8%, 3.2% 상향 조정한다.

■ Negatives : 유선통신 사업은 부진

1분기 유선통신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4.2%,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매출액이 예상보다 부진했다. IPTV와 기업사업(IDC, e-payment, e-commerce)이 어느 정도 만회할 지가 관건이다.

■ 결론 : 수익 상향으로 목표주가를 12,000원으로 높임

매수의견을 유지하며 수익 상향과 높은 성장성을 감안해 목표주가를 10,800원에서 12,000원으로 높인다. 목표주가는 12MF EPS에 PER 12.0배(4년 평균을 4.6% 할증)를 적용해 산출했다. 13년부터는 높은 성장을 지속하는 데다 수익성도 호전돼 성장과 수익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 향후 2년간 서비스 매출액과 조정순이익은 각각 연평균 8.8%, 86.2% 증가할 것이다. 13년, 14년 이동통신 ARPU는 전년 대비 각각 12.2%, 6.2% 증가할 전망이다. 높은 EPS 증가율을 감안할 때 13년, 14년 PER 11.8배, 8.4배는 낮아 보인다. 리스크 요인은 한전 보유 지분 8.8% 매각 추진에 따른 잠재매물 부담(2000년 매입원가는 10,200원이며 기간 이자 고려시 높아짐)이다.

(단위: 십억원, %, %p)

	1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894.9	2,859.7	(1.2)	2,810.8	3.8	12.6	11,691.0	11,515.6
영업이익	94.7	123.2	30.1	106.6	70.8	85.1	593.2	541.3
영업이익률(%)	3.3	4.3	1.0%p	3.8	NM	NM	5.1	4.7
세전이익	57.2	88.2	54.1	NA	NM	9,198.3	448.7	NA
순이익	51.5	74.3	44.3	55.7	NM	236.6	384.4	296.2

*상기 보고서는 2013년 4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솔브레인(036830)

매수(유지)

목표가: 54,000원(유지)

종가(4/30): 45,950원

1Q13 Preview: 모멘텀은 약하지만, 실적은 좋다

■ 1분기 매출액 전분기 대비 4% 감소한 1,699억원 예상

동사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4%, 7% 감소한 1,699억원, 265억원으로 추정된다. 반도체식각액과 2차전지 전해액의 단가인하, 엔화약세 영향 등으로 당초 매출액 추정치보다도 7%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단가인하와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하락폭은 예상보다 적어 영업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한 15.6%로 추정된다. 연간 매출액 증가율이 12%로 성장 모멘텀 약화가 예상되지만, 영업이익률은 전년과 비슷한 16%로 유지될 전망이다.

■ 1분기 계절적 수요부진, 단가인하, 엔화약세, 점유율 하락 등 악재 동시 발생

1분기가 전통적으로 계절적 비수기이고 단가인하가 나타나는 시기이지만, 이번에는 엔화약세로 인한 반도체용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전구체 매출감소와 TG(Thin Glass)사업 점유율 하락 등 악재가 더해졌다. 이와 같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하락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어 악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2분기부터 실적 모멘텀 회복

2분기부터는 1분기 악재에서 벗어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고객사의 가동률 상승으로 LCD식각액, TG사업 등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반도체 식각액도 물량 증가로 인한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 2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7% 증가한 1,820억원,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297억원으로 추정된다.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지만, 실적이 개선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54,000원 유지

비수기 효과와 단가인하 영향에도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이 예상되는 동사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4,000원을 유지한다. 10개 이상의 제품이 고르게 실적을 내고 있어 실적 안정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TG사업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2013년 추정EPS증가율은 13%로 최근 3년 평균 EPS증가율 39% 대비 많이 낮다. 약화된 성장 모멘텀을 반영해 2013년 추정EPS 기준 P/E도 9배 미만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1분기 이후 실적 개선과 함께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1A	481	59	19	7	484	(78.3)	79	79.8	9.2	2.5	3.2
2012A	664	107	96	74	4,680	866.9	137	10.0	6.1	2.3	26.4
2013F	746	120	112	85	5,273	12.7	156	8.7	5.1	1.8	22.9
2014F	864	123	115	88	5,430	3.0	161	8.5	4.8	1.5	19.4
2015F	994	137	142	109	6,719	23.7	177	6.8	4.2	1.2	19.9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3년 4월 3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유한양행(000100)

매수(유지)

목표가: 245,000원(상향)

종가(4/30): 210,000원

강한 외형성장 시험, 2분기가 더 기대

■ What's new : 업종 내 가장 높은 외형 성장세 시험, 기대치 부합

1분기 매출은 2,156억원(29.4% YoY), 영업이익 110억원(19.2% YoY)을 시험했다. Preview 예상대로 업종내 가장 높은 외형성장세를 시험했다. 영업이익은 대체로 기대치에 부합했다. 영업이익 성장이 제한적인 이유는 약가인하 이전의 높은 기저부담과 일회성 비용 때문이다. 2~3분기로 갈수록 1) 전년 2분기 약가인하 시행에 따른 낮은 기저효과가 발휘되고, 2) 외형확대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가 커지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 Positives : 전문의약품 고성장 지속,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API 수출도 성장회복

신규 품목도입(간질환 치료제 Viread,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 등) 효과로 전문의약품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했다(신제품 매출 비중 37.7% vs. 2012년 1분기 13.2%). 매출 강세는 1) 품목도입 상품 자체의 시장경쟁력과 2) 리베이트 규제 하에서 더욱 차별화된 영업능력 덕분이다. 최근 정부에서 검토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확대시행되는 경우에도(2013년 매출 0.5%, 영업이익 7% 하락 효과) 2013년 고성장 기조에 변함이 없다. 전년 4분기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API 수출도 고성장(29.6% YoY)을 시험했다. API 생산을 담당하는 유한화학의 공장증설(70% 확장) 완료로, 제2의 도약기를 위한 준비도 완료되었다.

■ Negatives : 유한킴벌리 성장 정체

4분기와 마찬가지로 유한킴벌리의 매출이 부진했다. 매출(3,607억원, -0.1% YoY)은 정체했고, 영업이익(401억원, -11.3% YoY)은 감소했다. 전년의 높은 기저효과와 경기침체 여파로 내수매출은 1.7% 성장에 그쳤고, 수출은 중국(6.6% YoY)을 제외한 기타지역 수출 감소로 7.1% 감소했다. 영업이익 부진은 1) 외형 둔화에 따른 고정비 부담과 2) 펄프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율 상승(+0.8%p YoY) 때문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1) 높은 기저효과 소멸과 2) 경기 회복 등으로 매출 성장률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 결론 : 강한 실적과 외부 파이프라인 확보 노력 등으로 디스카운트 해소중

목표주가를 215,000원에서 245,000원(2013년 EPS에 목표 PER 20배 적용, 목표 PER은 DCF 영업가치와 자회사 가치 등을 합산하여 도출)으로 14% 상향한다. 2013~2014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평균 3% 상향하고, 내재 목표 PER에 적용되던 상위 제약사 평균 PER(25배)대비 할인율을 기존 32%(17.5배)에서 20%(20배)으로 축소했다. 1) 업종 내 강한 실적 모멘텀, 2) 제2도약기를 맞이한 API 사업, 그리고 3) 지속적인 외부파이프라인 확보(2건의 바이오회사 지분 인수 및 쥘백스와의 신약협력 강화) 노력 등을 감안할 때, 동사의 valuation 할인을 축소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08	216	3.5	209	11.1	29.4	921	903
영업이익	11	12	5.5	13	53.5	19.2	65	57
영업이익률(%)	5.5	5.6		6			7.1	6.3
세전이익	33	36	7.7	32	4.4	11.2	85	113
순이익*	23	24	1.0	24	9.6	6.9	130	91

주: *1Q13P 실적 및 추정치는 지분법이익 반영된 조정 수치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대한통운(000120)

매수(유지)

목표가: 130,000원(유지)

종가(4/30): 106,000원

합병 상처 아물어간다

■ What's new : 택배 통합과정에서의 시행착오로 1분기 실적 부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523억원, 143억원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4%, 60.6% 감소했다(CJ GLS와 합병 전 기준). 컨센서스 및 우리 추정치와 유사한 실적이다. 매출액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계약물류(CL) 부문에서 부두공사가 완공되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300억원 감소한 것과 택배부문을 CJ GLS와 통합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처리물량이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택배부문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비용(약 100억원)과 CJ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하 KBCT)에서 작년 4분기부터 영업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Positives : 2분기부터 택배부문 정상화 기대

2분기부터 택배부문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대전 택배허브터미널 증축공사 때문에 겪었던 일시적인 택배처리량 감소 문제가 정상화 됐다. 4월 초 시행착오로 발생했던 택배 배달사고 문제도 다 정리됐다(9억원의 손해배상 비용 발생). 회사에 따르면 각각 6천명인 대한통운과 CJ GLS의 택배기사 12,000명의 배송구역을 조밀화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율성이 20~30%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택배수요가 20~30% 더 늘어날 때까지는 고정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효과가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 Negatives : 항만하역 부진 좀 더 이어질 듯

항만 입차료는 계속 발생하는데 기존 고객(해운업체)이 부산 신행으로 옮겨가면서 매출이 감소해 작년 4분기에 8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며, 1분기에도 8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CJ대한통운은 이와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에 선적반납, 입차료 인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자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듯하다. 택배시장의 성장 둔화추세도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10년까지 두 자리수로 성장하던 택배시장이 11년과 12년에는 각각 7.4%, 7.6% 성장했다(택배 수요 기준). 올해 1분기에는 6.8% 성장했다.

■ 결론 : 악재는 다 반영.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13만원을 유지한다. CJ GLS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과 예상치 못했던 배송 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투자심리는 주가에 다 반영됐다. 지금부터 미래를 전망해 보면, 2분기에는 택배부문이 정상화되고 하반기에는 택배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KBCT 손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목표주가 13만원은 영업가치에 비영업용 자산가치를 더해 구한 것이다(12/11/2일 제시).

(단위: 십억원, %, %p)

	1Q13P			컨센서스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664	652	(1.7)	701	(7.0)	(1.4)	2,989	3,197
영업이익	12	14	19.6	15	(18.4)	(60.6)	122	122
영업이익률(%)	1.8	2.2		2.1	(0.3)	(3.3)	4.1	3.8
세전이익	7	12	75.7	8	101.1	(58.4)	113	92
순이익	6	11	75.0	8	121.4	(60.1)	102	74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Oil(010950)

매수(유지)

목표가: 100,000원(하향)

종가(4/30): 88,500원

높은 배당 성향으로 가치를 증명할 것

■ What's new: 예상 수준의 실적 달성했으나 사업부별 마진 구조 변화 나타나

S-Oil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8조 237억원, 영업이익 3,269억원으로 당사의 추정치를 각각 6.4%, 9.6% 하회했다. 정유사업에서 832억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했으나 이보다 큰 1,310억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화학사업은 예상치인 2,580억에 비해 762억원 적은 1,817억원의 영업이익에 그쳤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정유사업의 제품이자 화학사업의 원료가 되는 납사의 내부 이전 가격을 상향 조정해 화학사업의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정유사업의 이익 증가만큼 화학사업의 이익 감소가 발생하므로 전체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정유사업의 이익중가가 478억원으로 화학사업의 이익감소에 비해 작은 것은 정유 사업에서 다음 분기 정기보수에 대비해 재고를 축적하며 판매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 Positives: 실적 안정되고 투자 소요 감소해 적극적 배당 확대 기대

S-Oil의 올해 보통주 배당금은 4,100원으로 예상된다. 예상 배당성향은 69%로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이 될 것이다. 2009년 이후에는 화학사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비해 이익유보비율을 높이면서 순이익의 40% 수준으로 배당을 줄였다. 또한 작년에는 2분기 적자를 기록하며 반기 배당 450원, 연말 배당 2,200원으로 합계 2,650원의 주당 배당을 실행해 53%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는 실적의 급격한 둔화를 가져올 악재가 없고, 대규모 투자계획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배당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Negatives: 석유제품 비수기 진입, 유가 하락으로 2분기 실적 둔화 예상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각각 11%와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제품의 계절적 수요 감소와 함께 2분기 중 정유사업과 화학사업의 정기보수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유가는 1분기 평균 배럴당 108달러에서 4월 평균 102달러까지 하락해 있어 정유 및 화학 제품 가격 또한 하락했다. 윤활기유의 수요 개선이 더디고 스프레드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 사업에서의 추가적인 실적 기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점도 부담이다.

■ 결론: 목표주가는 10만원으로 하향, 배당주로 접근

2013년과 2014년의 영업이익 전망을 각각 14%와 7% 하향함에 따라 목표주가를 12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한다. 현재 주가 대비 상승여력은 13%에 불과하나 이는 타 정유 기업에 비해 주가 하락 폭이 작았기 때문이며, 배당주로서의 주가 방어력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PBR은 1.8배로 설비투자를 위해 이익유보금을 크게 늘렸던 2009~2010년을 제외하면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단기 실적 개선에 의한 주가 모멘텀은 강하지 않으나 높은 배당 매력을 가지고 있어 목표주가 이하에서는 매수할 것을 추천한다.

(단위: 십억원, %, %p)

	1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8,566	8,014	(6.4)	8,601	(4.4)	(11.3)	30,849	33,674
영업이익	361	327	(9.6)	361	829.6	(13.8)	1,101	1,392
영업이익률(%)	4.2	4.1	(0.1)	4.2			3.6	4.1
세전이익	362	193	(46.8)	339	NM	(53.6)	949	1,411
순이익	265	147	(44.4)	260	NM	(53.4)	693	925

*상기 보고서는 2013년 5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4/24(수)	04/25(목)	04/26(금)	04/29(월)	04/30(화)	05/02(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35.31	1,951.60	1,944.56	1,940.70	1,963.95	1,957.21
	등락폭	16.68	16.29	-7.04	-3.86	23.25	-6.74
	등락종목						
	상승(상한)	630(8)	441(2)	428(4)	376(6)	505(4)	318(5)
	하락(하한)	195(0)	374(0)	369(0)	428(3)	290(4)	486(1)
	ADR	98.03	98.55	96.30	97.67	102.81	100.88
	이격도						
	10 일	100.65	101.49	101.02	100.71	101.70	101.17
	20 일	99.62	100.57	100.36	100.31	101.57	101.29
	투자심리	60	60	60	60	60	50
코스닥	거래량 (백만 주)	341	335	280	266	403	343
	거래대금 (십억 원)	4,433	4,598	4,068	3,648	4,975	4,038
	코스닥지수	563.81	559.40	565.35	568.36	563.87	560.48
	등락폭	9.44	-4.41	5.95	3.01	-4.49	-3.39
	등락종목						
	상승(상한)	630(13)	441(12)	428(9)	376(10)	505(9)	411(14)
	하락(하한)	195(1)	374(7)	369(0)	428(1)	290(4)	504(4)
	ADR	100.23	97.98	98.55	100.61	102.21	101.23
	이격도						
	10 일	102.12	101.05	101.79	102.07	101.17	100.53
	20 일	102.63	101.76	102.75	103.16	102.24	101.60
	투자심리	60	60	60	60	60	50
	거래량 (백만 주)	475	547	490	442	506	447
	거래대금 (십억 원)	2,717	2,958	2,532	2,429	2,704	2,290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979.0	1,099.0	942.1	186.3	148.0	261.6	67.4	29.3	249.484	38.3
	매도	1,840.7	1,188.4	975.1	226.2	143.7	284.2	62.0	28.1	230.9	54.3
	순매수	138.3	-89.3	-33.1	-39.9	4.3	-22.6	5.4	1.1	18.6	-15.9
	5 월 누계	138.3	-89.3	-33.1	-39.9	4.3	-22.6	5.4	1.1	18.6	-15.9
	13 년 누계	1,210.8	-5,844.9	5,070.2	1,741.4	642.5	-1,443.6	160.7	90.2	3,878.8	-436.0
코스닥	매수	2,106.0	106.8	82.1	17.8	11.0	26.1	4.6	2.0	20.5	15.0
	매도	2,015.2	130.5	139.7	26.9	13.8	49.2	13.5	4.2	32.2	24.4
	순매수	90.8	-23.7	-57.6	-9.1	-2.8	-23.1	-8.9	-2.1	-11.7	-9.5
	5 월 누계	90.8	-23.7	-57.6	-9.1	-2.8	-23.1	-8.9	-2.1	-11.7	-9.5
	13 년 누계	-1,399.7	694.7	1,045.6	73.3	50.6	364.8	-74.7	-13.7	656.0	-340.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통신업	29,905	전기,전자	-18,133
전기가스업	5,487	서비스업	-14,263
유통업	4,820	화학	-7,439
KT	22,499	LG전자	-14,402
SK텔레콤	6,732	SK이노베이션	-11,126
SK하이닉스	5,936	LG디스플레이	-6,903
한국전력	5,652	삼성중공업	-4,169
현대모비스	4,873	현대중공업	-3,472

은행		보험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전기,전자	4,326	통신업	-8,705
운수장비	3,160	전기가스업	-784
철강및금속	750	서비스업	-677
TIGER 200	2,672	KT	-7,923
현대차	2,153	KODEX 인버스	-1,768
SK하이닉스	2,116	한국전력	-964
KODEX 레버리지	1,589	SK텔레콤	-808
LG디스플레이	1,094	하나금융지주	-788

(체결기준: 백만원)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통신업	12,486	서비스업	-26,165
제조업	7,002	유통업	-21,159
보험	6,687	화학	-17,588
삼성전자	38,752	LG전자	-39,106
LG유플러스	34,945	KT	-20,096
KODEX 200	26,021	SK하이닉스	-14,963
기아차	22,295	S-Oil	-12,791
삼성화재	10,962	NHN	-12,640
POSCO	6,987	신한지주	-9,840
KT&G	6,966	삼성물산	-9,426
KB금융	6,447	현대차	-9,379
SK이노베이션	4,726	한국전력	-9,111
아모레퍼시픽	4,456	SK	-7,118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통신업	46,447	금융업	-49,141
운수장비	15,839	전기,전자	-19,190
전기가스업	9,507	화학	-16,219
KT	45,404	KODEX 200	-27,690
KODEX 인버스	25,730	LG전자	-17,917
삼성전자	18,357	KB금융	-15,908
현대모비스	13,149	SK이노베이션	-15,330
NHN	11,614	LG디스플레이	-14,526
한국전력	9,662	신한지주	-14,265
SK	9,177	KODEX 레버리지	-13,999
삼성생명	8,793	우리금융	-13,533
SK텔레콤	8,038	GS	-10,638
SKC	7,349	POSCO	-9,352

외국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통신업	12,486	서비스업	-26,165
제조업	7,002	유통업	-21,159
보험	6,687	화학	-17,588
삼성전자	38,752	LG전자	-39,106
LG유플러스	34,945	KT	-20,096
KODEX 200	26,021	SK하이닉스	-14,963
기아차	22,295	S-Oil	-12,791
삼성화재	10,962	NHN	-12,640
POSCO	6,987	신한지주	-9,840
KT&G	6,966	삼성물산	-9,426
KB금융	6,447	현대차	-9,379
SK이노베이션	4,726	한국전력	-9,111
아모레퍼시픽	4,456	SK	-7,11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서비스	2,326	출판,매체복제	-9,068
연구,개발	1,936	반도체	-2,868
화학	1,109	사업지원	-2,084
SK브로드밴드	2,326	에스엠	-9,067
씨티씨바이오	1,353	모두투어	-1,466
마크로젠	1,335	파트론	-1,118
에이블씨엔씨	858	매일유업	-966
솔브레인	771	CJ오쇼핑	-965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도매	1,127	IT부품	-5,071
통신서비스	1,016	제약	-1,870
금융	769	오락,문화	-1,500
SK브로드밴드	1,016	인터플렉스	-1,551
삼천리자전거	959	플렉스컵	-1,473
게임빌	912	메디톡스	-1,377
한국토지신탁	769	파라다이스	-1,262
동양이엔피	654	멜파스	-1,243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사업지원	750	디지털컨텐츠	-612
반도체	423	전문기술	-546
비금속	385	IT부품	-304
하나투어	739	게임빌	-575
포스코케미칼	385	CJ E&M	-537
서울반도체	269	에스엠	-285
루멘스	183	매일유업	-264
SK브로드밴드	93	동양이엔피	-244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314	제약	-1,911
도매	1,196	디지털컨텐츠	-1,803
음식료,담배	480	출판,매체복제	-1,192
CJ오쇼핑	1,509	GS홈쇼핑	-1,293
서울반도체	723	에스엠	-1,192
파라다이스	460	에스텍파마	-1,012
이지바이오	404	메디톡스	-804
하나마이크론	372	게임빌	-797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서비스	4,129	출판,매체복제	-11,918
연구,개발	1,620	IT부품	-9,532
도매	1,555	제약	-7,365
SK브로드밴드	4,209	에스엠	-12,118
옵트론텍	1,346	컴투스	-3,057
이오테크닉스	1,097	메디톡스	-2,957
삼천리자전거	1,039	모두투어	-2,305
바이로메드	1,021	게임빌	-2,261
골프존	923	CJ E&M	-2,211
마크로젠	810	매일유업	-2,026
바이오랜드	789	웰크론한텍	-1,919
성광벤드	705	파트론	-1,874
가비아	647	비에이치	-1,744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소프트웨어	7,056	IT부품	-8,548
도매	1,951	제약	-7,762
운송장비,부품	783	출판,매체복제	-6,155
원스텍네트	4,182	셀트리온	-7,191
메디톡스	2,087	에스엠	-6,222
서울반도체	1,567	파트론	-3,181
모두투어	1,376	게임빌	-2,404
세코닉스	1,368	솔브레인	-2,023
에스텍파마	1,252	비에이치	-1,579
성우하이텍	1,068	이엘케이	-1,539
삼천리자전거	1,066	메디포스트	-1,320
캠트로닉스	988	우리기술	-1,081
마크로젠	893	CJ E&M	-1,037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유니드	22 일	녹십자	17 일
삼양사	19 일	대한제분	15 일
코오롱	12 일	LS	12 일
한국철강	12 일	현대엘리베이	10 일
태광산업	11 일	한라공조	9 일
현대글로벌비스	11 일	일진디스플레이	9 일
화신	10 일	엔씨소프트	9 일
삼성전자	8 일	코오롱인더	8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93 일	현진소재	8 일
크레듀	9 일	인터파크	5 일
동국산업	8 일	성광벤드	4 일
심텍	7 일	SK브로드밴드	4 일
SK브로드밴드	6 일	포스코캠텍	2 일
메가스터디	6 일	하이록코리아	2 일
테크노세미캠	5 일	태산엘시디	2 일
이오테크닉스	5 일	심텍	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85,821	SK하이닉스	119,341
KODEX 레버리지	204,596	KODEX 200	84,483
기아차	138,398	LG유플러스	62,122
현대차	114,585	기아차	50,141
KT	63,999	LG디스플레이	33,938
세아제강	59,535	삼성화재	29,081
NHN	57,320	KT&G	22,101
삼성생명	52,555	엔씨소프트	21,781

KOSDAQ			
기	관	외	국 인
SK브로드밴드	15,776	바이오랜드	6,102
KG모빌리언스	3,785	안랩	5,373
솔브레인	3,697	GS홈쇼핑	4,401
한글과컴퓨터	3,456	인터파크	4,215
마кро젠	3,275	다음	4,204
이지바이오	3,258	성우하이텍	3,207
이오테크닉스	2,981	서울반도체	3,132
코오롱생명과학	2,779	게임빌	2,876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통신업	46,447	12,486	58,933
운수장비	15,839	3,827	19,667
보험	4,024	6,687	10,711
삼성전자	18,357	38,752	57,109
기아차	3,780	22,295	26,075
삼성전기	1,298	3,676	4,975
한전KPS	3,087	756	3,843
현대글로벌비스	1,454	2,120	3,574
휠라코리아	2,322	475	2,797
한전기술	2,313	46	2,359
기업은행	1,157	603	1,760
넥센타이어	771	894	1,665
한진해운	1,077	394	1,471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도매	1,555	1,951	3,506
연구,개발	1,620	226	1,846
인터넷	455	598	1,052
SK브로드밴드	4,209	156	4,365
삼천리자전거	1,039	1,066	2,104
마크로젠	810	893	1,703
성광벤드	705	688	1,393
바이오랜드	789	447	1,237
골프존	923	90	1,012
슈프리마	78	848	926
디스플레이텍	21	735	756
씨티씨바이오	491	247	738
가비아	647	76	72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동부제철	21 일	대교	31 일
아모레퍼시픽	16 일	NHN	22 일
LS	13 일	SKC	19 일
TIGER 모멘텀	13 일	고려아연	15 일
한진중공업홀딩스	12 일	한일이화	12 일
일진디스플레이	10 일	삼성엔지니어링	12 일
한라공조	9 일	신한지주	7 일
신도리코	9 일	CJ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GS홈쇼핑	12 일	KCC건설	23 일
에스에프에이	7 일	파라다이스	6 일
에스엠	6 일	코미팜	5 일
모두투어	6 일	테크노세미캠	4 일
인터파크	5 일	큐렉소	4 일
STS반도체	5 일	포스코 ICT	3 일
서울반도체	5 일	네패스	3 일
다날	5 일	씨앤케이인터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현대모비스	-118,037	삼성전자	-124,323
KODEX 200	-88,840	NHN	-67,179
LG전자	-88,437	신한지주	-48,351
LG디스플레이	-69,623	KT	-47,986
SK하이닉스	-53,279	현대차	-36,615
GS	-26,734	POSCO	-36,575
현대건설	-25,749	하나금융지주	-35,669
엔씨소프트	-25,258	CJ제일제당	-34,678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엠	-42,955	에스엠	-10,320
게임빌	-12,089	하나투어	-4,620
GS홈쇼핑	-11,795	코미팜	-4,081
서울반도체	-10,363	오스템임플란트	-3,350
CJ E&M	-7,667	솔브레인	-3,298
농우바이오	-6,525	파라다이스	-2,336
인터파크	-5,932	동서	-2,194
JCE	-4,881	알에프텍	-1,734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금융업		-49,141	-11,923 -61,064
서비스업		-15,091	-26,165 -41,256
화학		-16,219	-17,588 -33,807
LG전자		-17,917	-39,106 -57,023
신한지주		-14,265	-9,840 -24,105
KODEX 레버리지		-13,999	-5,361 -19,360
우리금융		-13,533	-545 -14,078
GS		-10,638	-985 -11,622
하나금융지주		-6,307	-4,039 -10,345
코스맥스		-4,573	-4,211 -8,784
GS건설		-1,577	-4,516 -6,093
락앤락		-3,899	-1,153 -5,052
한화케미칼		-3,127	-1,767 -4,893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IT부품		-9,532	-8,548 -18,080
출판,매체복제		-11,918	-6,155 -18,074
제약		-7,365	-7,762 -15,127
에스엠		-12,118	-6,222 -18,341
셀트리온		-67	-7,191 -7,259
파트론		-1,874	-3,181 -5,055
게임빌		-2,261	-2,404 -4,665
비에이치		-1,744	-1,579 -3,323
CJ E&M		-2,211	-1,037 -3,247
컴투스		-3,057	-24 -3,080
매일유업		-2,026	-816 -2,843
이엘케이		-1,072	-1,539 -2,611
웰크론한텍		-1,919	-290 -2,209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20	30,268
SK하이닉스	263	7,863
SK텔레콤	34	6,619
기아차	104	5,707
LG유플러스	482	5,024
GS건설	103	3,098
LG화학	12	2,969
LG디스플레이	92	2,76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CJ E&M	50	1,838
다음	14	1,236
에스에프에이	18	1,172
컴투스	20	1,022
게임빌	10	1,017
에스엠	23	1,013
씨젠	15	1,006
크루셜텍	55	789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570	5,425,901
POSCO	8,760	2,750,790
LG전자	15,507	1,366,200
OCI	7,728	1,093,461
현대차	5,151	1,027,702
SK하이닉스	28,187	842,797
NHN	2,590	766,626
현대모비스	2,714	678,40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3,761	434,833
파라다이스	4,761	108,798
서울반도체	3,397	101,240
에스엠	1,588	67,245
덕산하이메탈	2,399	65,504
에이블씨엔씨	1,073	64,514
차바이오텐	4,797	61,400
인터플렉스	1,239	57,477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5,750	은행	-4,630
금융업	3,573	전기,전자	-3,487
서비스업	1,296	운수장비	-1,983
한진해운	5,914	외환은행	-4,711
하나금융지주	2,736	LG전자	-3,868
대한전선	2,414	알앤엘바이오	-2,306
한화생명	1,016	SK하이닉스	-2,250
SG세계물산	946	삼성중공업	-1,479
중국원양자원	867	넥센타이어	-1,466
대우건설	820	KODEX 200	-1,338
한라비스테온공조	632	기아차	-755
GKL	495	두산건설	-704
이수페타시스	482	두산인프라코어	-68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IT부품	1,992	연구,개발	-92
의료,정밀기기	836	환경	-11
전문기술	771	통신서비스	-3
리튬쿰	614	셀트리온	-945
조아제약	582	서울반도체	-529
태창파로스	510	STS반도체	-512
오스템임플란트	484	씨젠	-434
이지바이오	479	록손에너지	-348
인터파크	418	AP시스템	-284
에스엠	350	대아티아이	-228
제주반도체	350	원익IPS	-182
시노펙스	337	크리스탈	-158
크루셜텍	301	자유투어	-69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4/25(목)	04/26(금)	04/29(월)	04/30(화)	05/02(목)
외국인	-5,844.9	-89.3	676.0	50.9	-116.4	-179.3	31.5	-89.3
기관계	5,070.2	-33.1	-244.3	85.5	79.7	157.5	403.4	-33.1
(투신)	-1,443.6	-22.6	-442.3	73.2	36.6	18.6	145.2	-22.6
(연기금)	2,762.9	19.9	-43.5	78.3	-18.9	0.7	29.5	19.9
(은행)	90.2	1.1	-1.4	3.3	2.4	7.2	22.2	1.1
(보험)	642.5	4.3	28.0	39.6	15.1	50.4	146.6	4.3
개인	1,210.8	138.3	-377.4	-150.0	41.1	14.5	-356.7	138.3
기타	-436.0	-15.9	-54.3	13.5	-4.4	7.3	-78.1	-15.9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04/24(수)	04/25(목)	04/26(금)	04/29(월)	04/30(화)
KOSPI	2,033.3	1,825.7	1,997.1	1,935.3	1,951.6	1,944.6	1,940.7	1,964.0
고객예탁금	15,249.8	17,680.2	18,014.3	18,212.5	18,761.8	18,365.0	18,565.0	17,997.5
(증감액)	1,996.5	3,611.7	334.1	-351.7	549.3	-396.8	200.0	-567.5
(회전율)	50.3	34.2	26.7	39.3	40.3	35.9	32.7	42.7
실질예탁금 증감	-3,502.6	3,775.5	-13,274.3	-397.8	448.4	-498.8	105.6	-619.8
신용잔고	59,709.0	44,763.0	39,124.0	4,514.9	4,522.3	4,534.8	4,537.7	4,560.2
미수금	1,778.0	1,877.0	1,241.0	118.6	201.2	107.4	112.8	110.4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4/24(수)	04/25(목)	04/26(금)	04/29(월)	04/30(화)
전체 주식형	91,678	-2,142	129	-5	-427	-64	13	14
(ex. ETF)		-2,591	270	21	-104	5	13	16
국내 주식형	67,435	-1,048	318	4	-437	-53	13	26
(ex. ETF)		-1,505	461	30	-113	16	13	28
해외 주식형	24,244	-1,094	-189	-9	9	-11	0	-12
(ex. ETF)		-1,086	-191	-9	9	-11	0	-12
주식 혼합형	9,689	-243	134	4	7	4	23	10
채권 혼합형	22,167	3,281	1,529	-53	20	203	10	89
채권형	54,905	3,277	1,071	-346	434	428	239	-326
MMF	65,211	1,301	-10,460	-353	-2,724	-2,282	-1,324	-2,33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4/25(목)	04/26(금)	04/29(월)	04/30(화)	05/02(목)
한 국	-5,236	-79	1,454	46	-112	-162	29	-79
대 만	1,774	269	1,779	186	181	361	352	269
인 도	11,151	0	616	285	-	-	-	-
인도네시아	2,012	1	439	-39	-22	11	55	-
태국	-558	0	394	-95	94	-40	49	-
남아공	1,304	0	291	25	104	341	-190	-
필리핀	1,289	0	35	8	3	6	26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4/24(수)	04/25(목)	04/26(금)	04/29(월)	04/30(화)	05/02(목)
회사채 (AA-)	3.29	2.96	2.91	2.87	2.88	2.85	2.81
회사채 (BBB-)	8.80	8.58	8.53	8.49	8.50	8.47	8.43
국고채 (3년)	2.82	2.61	2.56	2.52	2.52	2.49	2.44
국고채 (5년)	2.97	2.68	2.63	2.58	2.59	2.56	2.51
국고채 (10년)	3.16	2.85	2.82	2.80	2.81	2.77	2.73
미 국채 (10년)	1.76	1.71	1.71	1.66	1.67	1.62	-
일 국채 (10년)	0.80	0.60	0.58	0.59	0.59	0.59	-
원/달러	1,070.60	1,117.70	1,112.10	1,112.30	1,107.20	1,101.20	1,101.00
원/엔	1,243.73	1,125.24	1,118.14	1,126.84	1,133.00	1,126.00	1,133.00
엔/달러	86.08	99.33	99.46	98.71	97.80	97.81	97.23
달러/유로	1.32	1.30	1.30	1.30	1.30	1.30	1.31
DDR3 1Gb (1333MHz)	0.67	1.05	1.05	1.05	1.05	1.05	-
DDR3 2Gb (1333MHz)	1.07	1.69	1.68	1.68	1.68	1.69	-
NAND Flash 16Gb (MLC)	1.89	2.99	2.99	2.97	2.97	2.98	-
CRB 지수	295.01	282.90	287.13	285.40	289.44	283.27	-
LME 지수	3,454.5	3,098.9	3,150.9	3,078.0	3,119.5	2,976.9	-
BDI	699	879	872	871	868	862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1.43	93.64	93.16	94.52	90.99	-
금 (달러/온스)	1,663.40	1,423.70	1,462.00	1,453.60	1,467.40	1,446.2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306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4월 25일	254.49	254.70	0.95	0.21	0.91	200,712	118,453	74
4월 26일	253.04	254.40	0.93	1.36	0.89	132,640	117,074	-1,379
4월 29일	252.25	253.55	0.87	1.30	0.99	118,505	116,328	-746
4월 30일	255.72	257.15	0.86	1.43	1.32	177,521	121,531	5,203
5월 2일	254.92	255.70	0.84	0.78	0.79	152,189	116,653	-4,878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4월 25일	-1,109	1,757	-794	-464	-106	-7	28	-244
4월 26일	838	798	-1,545	-289	-1,144	-62	-172	122
4월 29일	-382	617	-38	353	-398	85	17	-96
4월 30일	7,650	-735	-7,218	-5,211	-924	-48	-789	-245
5월 2일	-4,512	1,208	3,334	4,158	-1,006	88	145	-51
누적포지션	-18,285	1,221	16,286	2,143	15,180	-465	-1,432	846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4월 25일	653	864	212	642	815	173	11	49	38	5,004	8,888
4월 26일	734	688	-46	708	640	-68	26	48	22	5,008	8,911
4월 29일	555	662	108	549	608	59	6	54	48	5,003	8,957
4월 30일	974	1,407	433	967	1,186	219	7	221	214	4,965	9,138
5월 2일	786	737	-48	770	725	-45	15	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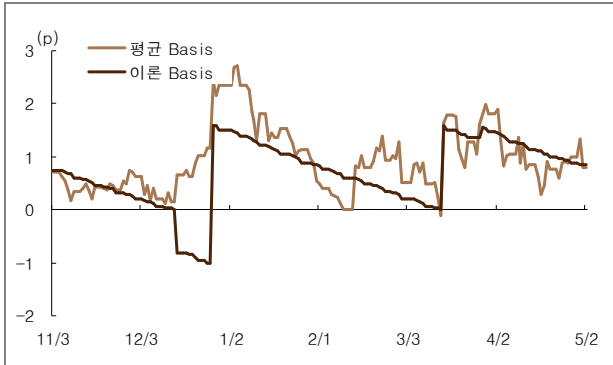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변동성
15.81	7,597	36,534	0.03	267.50	12.65	24	-8	22.24
14.62	5,011	75,811	0.06	265.00	10.10	93	-23	17.65
14.36	2,238	113,013	0.17	262.50	7.45	799	53	8.72
14.52	3,396	196,406	0.47	260.00	5.30	6,206	303	13.22
14.75	1,176	171,386	1.09	257.50	3.55	15,454	-175	14.88
15.14	1,070	134,039	2.16	255.00	1.98	153,119	576	14.25
16.02	-236	10,130	3.75	252.50	1.07	149,134	-1,007	15.02
17.45	-228	3,367	5.75	250.00	0.52	143,345	-577	15.58
18.03	-25	388	7.90	247.50	0.24	101,504	-107	16.28
0.00	-18	117	10.00	245.00	0.12	71,224	1,272	17.43
24.44	-18	74	12.80	242.50	0.06	51,534	-2,486	1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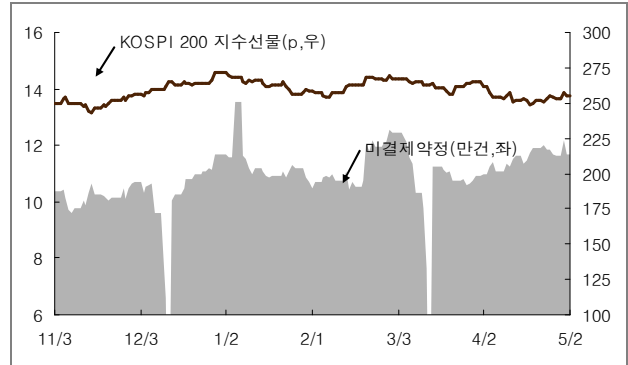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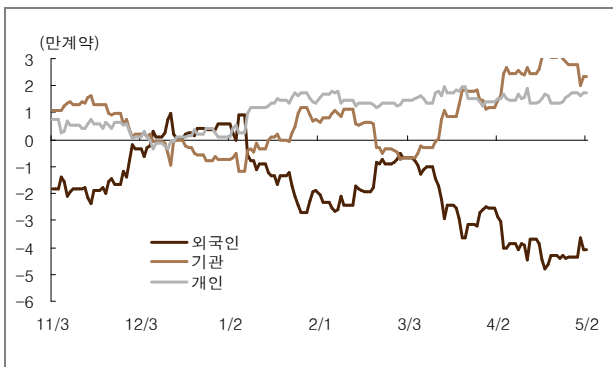
- 평균 Basis: 0.79 (전 거래일 대비 0.53 하락)
- 이론 Basis: 0.84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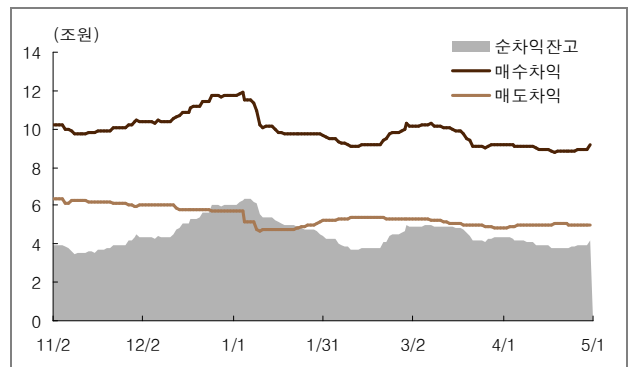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4,878 계약 감소한 116,653 계약
- 선물가격(255.70): 전 거래일 대비 1.4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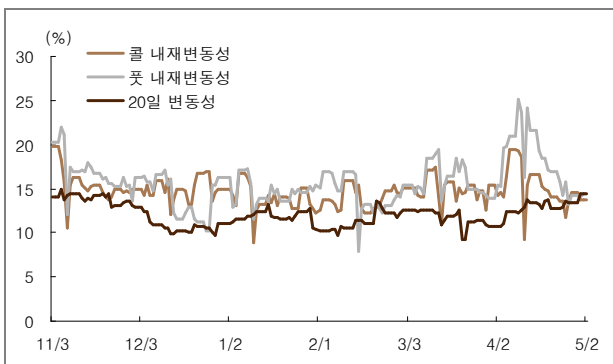
- 외국인: 4,512 계약 순매도
- 기관: 3,334 계약 순매수 / 개인: 1,208 계약 순매수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31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451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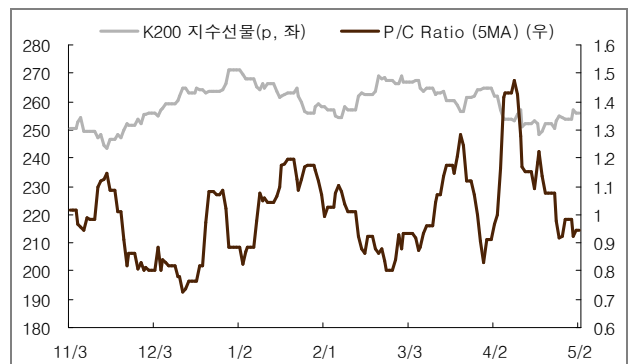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3.7% / 풋 14.4%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4.43%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3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5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2	23	24	25	26
美> 3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0.23, 0.29, 0.76) 3월 기존주택매매 MoM (-0.6%, 0.4%, 0.2%) 실적발표> 美 캐터필러	美> 2월 주택가격지수 (0.7%, 0.7%, 0.6%) 3월 신규주택매매 MoM (1.5%, 1.1%, -7.6%) 유럽> 4월 PMI 제조업 (46.5, 46.7, 46.8) 4월 PMI 서비스 (46.6, 46.6, 46.4) 中> 4월 HSBC 플래시 제조업 PMI (50.5, 51.4, 51.6)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0.2%, n/a, 4.8%) 3월 내구재 주문 (-5.7%, -3.0%, 4.3%)	韓> 1분기 GDP QoQ (0.9%, 0.7%, 0.3%) 1분기 GDP YoY (1.5%, 1.4%, 1.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3.9만, 35.0만, 35.5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300.0만, 306.0만, 306.8만)	韓> 4월 한국 소비자대지수 (102, n/a, 104) 美> 1분기 GDP QoQ(연간화) (2.5%, 3.0%, 0.4%) 4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76.4, 73.5, 72.3) 日> 3월 국내 CPI YoY (-0.9%, -0.8%, -0.7%)
29	30	5/1	2	3
韓> 3월 경상수지 (\$497.9억, n/a, \$271.3억) 美> 3월 개인소비지수 (0.2%, 0.1%, 0.7%) 3월 미결주택매매 MoM (1.5%, 1.0%, -1.0%) 3월 미결주택매매 YoY (5.8%, 6.1%, 4.3%) 유럽> 4월 유로권 경제기대지수 (88.6, 89.5, 90.1) 4월 유로권 산업기대지수 (-13.8, -13.5, -12.3) 中> 3월 선행지수 (n/a, n/a, 100.23)	韓> 5월 제조업 BSI (81, n/a, 80) 3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0.2, n/a, -0.1) 美> 2월 S&P/CS 주택가격지수 (146.57, 146.43, 146.14) 4월 소비자대지수 (68.1, 61.0, 61.9) FOMC 회의 유럽> 3월 유로권 실업률 (12.1%, 12.1%, 12.0%) 日> 3월 실업률 (4.1%, 4.2%, 4.3%) 3월 주택착공건수 YoY (7.3%, 6.0%, 3.0%) 3월 건설수주 YoY (-3.4%, n/a, 16.3%)	韓> 4월 소비자 물가지수 (-0.1%, 0.2%, -0.2%) 4월 무역수지 (백만\$) (2582, 3488, 3289) HSBC 제조업 PMI (52.6, n/a, 52.0)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8%, n/a, 0.2%) 4월 ADP 취업자변동 (11.9만, 15.0만, 15.8만) 4월 ISM 제조업지수 (50.7, 51.0, 51.3) FOMC 금리결정 中> 4월 제조업 PMI (50.6, 50.7, 50.9) 日> 4월 자동차 판매 (2.0%, n/a, -15.6%)	美> 3월 무역수지 (n/a, -\$420억, -\$430억)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4.5만, 33.9만)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n/a, n/a, 300.0만) 유럽> 4월 PMI 제조업 (n/a, 46.5, 46.5) ECB 금리 공시 中> 4월 HSBC 제조업 PMI (50.4, 50.6, 51.6) 실적발표> 韓 SK텔레콤,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美 블랙록, 에스피로더, 제네럴모터스	美> 4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n/a, 14.5만, 8.8만) 4월 실업률 (n/a, 7.6%, 7.6%) 4월 ISM 비제조업지수 (n/a, 54.0, 54.4) 中> 4월 비제조업 PMI (n/a, n/a, 55.6) 실적발표> 韓 강원랜드, KT, 제일모직, 대한항공, BS금융지주 美 크래프트, 무디스, 펌코, 듀크에너지
6	7	8	9	10
유럽> 4월 PMI 비제조업 5월 섀넥스 투자자대지수 3월 유로권 소매판매 MoM, YoY	美> 5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韓> 3월 M2 SA 4월 은행가계대출 (KRW, 조) 美> 3월 소비자신용지수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中> 4월 무역수지 (미달러) 4월 수출 (YoY%) 4월 수입총액 (YoY%)	韓>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中> 4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4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日> 3월 무역수지- BOP기준 3월 경상수지 YoY%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